



6·25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94년 10월 4일. 압록강가 중강진의 끝머리에 붙어 있는 ‘호하’ 광산촌.

“누구요?”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면서 낮익은 얼굴이 비에 흥건히 젖어 방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국경을 지나들며 밀무역을 하는 이씨였다. 오자마자 배를 준비해 놓았으니, 빨리 가자고 서둘렀다.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된 터라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리 급해도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아이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면 한 시간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빗속에 배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선이더러 형을 불러오라고 했다.

“아버지, 가지 마시라우야.”

선일이가 먼저 입을 뗐다. 아이들은 내가 이씨와 가는 곳이 중국 어디쯤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듯 갑자기 아이들 태도가 변했다.

“아버지, 다녀오시라우야. 그런데 꼭 한 달만이라도. 한 달은 우리가 어케 둘러댈 테니 그 안에 돌아오면 문제 없겠지요.”

“그래. 한 달만 갔다 오마. 그런데 그 한 달이 열 달이 될 수도 있다.”

선일이가 역시 시원하게 대답했다.

“열 달이 돼도 기다리겠지요. 잘 다녀오시라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헤지는 것이 죽어서 헤지는 것보단 나을지 모르디요.”(조창호 자서전 『돌아온 死者』 중 발췌).

이렇게 그는 두 아들 선일·선이 그리고 딸 선옥이와 어찌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별을 했다.

조창호 집사. 그는 1930년 10월 2일에 평양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선교사의 인도로 서양의학을 공부하여 평양에서 「제세의원」을 운영한 양의(洋醫)였고, 장대재 교회의 장로였으며 어머니 또한 장대재 교회 장로의 따님으로 새벽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신자



◇ “한국의 원조가 절실하지만, 먼저 한국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분별 없는 친북이 아닌, 기도 가운데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였다. 그의 ‘창호’라는 이름도 그 당시 할아버지가 최고의 애국자로 생각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에서 차명(借名)해 지어 주셨다. 1936년에 서울로 이주한 후 온 식구가 새문안교회를 다녔다.

“정문을 들어서 올라오느라, 나무그늘 사이로 목조 단층 건물이 보이고, 신을 벗고 마루에 들어서든 생각이 납니다. 우측에는 김영주 목사님 사택이 있었고, 주일예배가 끝나면, 마당에서 성도들이 삼삼오오 담소하였고, 선교사 언더우드(원한경) 목사님의 모습도 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일까? 43년 간의 노예 같은 생활 속에서도, 탈출 후 기자가 ‘기억하는 성경구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침없이 암송할 수 있었고, 주기도문과 찬송을 기억할 수 있었나 보다.

그가 경기도상(현 경기상고)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그 해 6·25가 발발했다. 3개월 간을 토굴 속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수복된 서울의 폐허를 바라보면서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개인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허황된 것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에는 군대

에 가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시에 장남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며칠을 두고 고민 하다가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면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나봐요!

그는 효자동 집 근처에 있던 포병사령부를 찾아갔고, 대구 육군본부에서 사관학교 입영통지서를 받아 부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겨우 9주만에 몇년에 걸쳐 배워야 할 과목을 이수하고 짧은 진해 포병학교의 훈련을 끝으로 1951년 4월에 9사단 101포대로 배치될 받아 참전했다. 이때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던 때였다. 최전방 관측장교였던 그는 매봉산과 한석산에서 교전하던 중 철수명령을 받고 포대 본부로 철수했으나, 이미 본부는 전부 철수하고 난 뒤였으며, 사흘 뒤 중군군에 포로로 잡혀 내금강의 장안사에서 인민군에게 인도되었고, 그의 43년 세월은 질곡과 고통 속에 잠들어 있었다.

“반란과 탈주기도범이라는 형법 69조를 적용하여 인민군 군사법정에서 13년 교화소형을 받았어요. 교화소에서 만난 국군포로들을 보면 북한출신이거나 장교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걸 보면 이들을 포로교환에서 제외시키려고 죄수 신분을 만들어 서둘러 교화소로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포로대우를 해 달라고 사정해도 그들은 일방적인 선고만 하고 교화소로 넘겨졌거든요.”

그는 원산, 회창, 덕천교화소를 거쳐 1952년 5월에 만포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이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국군 포로들의 시체를 묻어야 했다. 배고픔과 질병, 더욱이 포로교환이 끝났다는 소식으로 인한 절망감, 탈출이란 꿈도 못꾸는 현실이 청춘의 목숨을 힘없이 부스러지게 했던 것이다. 1953년 7월에는 다시 아오지 제1특별 수용소로 이동했다. 여기에는 일반 죄수들은 별로 없었고, 국군포로나 목사나 전도사, 정치범들이 주를 이루었다.

“아오지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독방’이었어요. 가로 세로 50cm도 안되고, 천장도 낮아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방이 스무 개쯤 있었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누구나 독방에 한번씩은 보냈어요. 비

좁아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침묵과 공포와 빈대로 인한 가려움과의 싸움이었지요. 일주일만 독방에 있다 와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열흘을 넘기고 나오면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런대로 굳건하게 견디던 국군 포로들도 며칠 동안은 콜록이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갔지요.”

그는 다시 이감명령을 받았다. 남아 있던 국군포로들 중 건강한 사람들만 추려져서 강계교화소로 보내졌다. 강계 26호 군수공장에서 총알과 포탄을 만드는 노동일을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다. 1960년 여름 피를 대야의 절반 정도가 넘게 토하고 시체 치우기에 가장 가까운 문 옆의 병상에 방치되었다. 그러나 위생실에 배치되어 있던 김춘애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 김춘애 역시 국군포로로 17년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청진의대출신이었다.

1964년 7월, 13년에서 6개월이 감해진 12년 6개월만에 교화소생활을 마감하고 화풍광산에서 광원으로 일하다가 36세에 남한출신으로 귀환병이었던 백경희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두었지만, 결혼생활도 안전보위부 요원의 집요한 감시(아내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 지하당 총책이었다가 국제간첩으로 처형당했던 박사연과의 연루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공을 세우고자 한 의도였음)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신경쇠약증세로 완전히 파탄나고, 10년을 넘게 있었던 화풍광산의 폐광되어 호하광산으로 옮겨 온 후 1976년에 정식 이혼허가가 났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편안함과 새로운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그에게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게 했던 찬송은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되시니~’ 찬송가 93장이었다.

“그러나 원망의 기도가 더 많았고, 고비들을 넘기고 나서 생각하면 나의 기도가 부끄럽고 죄스러웠죠. 휴전선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압록강가의 오지가 오히려 탈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께 물려받은 나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는 지금도 두고 온 자식 생각에 늘 가슴이 시리다. 성분이 나빠 군대도 못 가고, 호하에서 광산노동자로 일



하는 아들들과 미처 결혼도 못시킨 딸이 수시로 눈앞에 어른거린다. 호하도 강냉이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나온 사람이 없었던, 1년 내내 감자만 먹어야 한다면 낭림으로 추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욱 통일을 소망한다.

조창호 집사는 1995년 윤신자 집사와 새 가정을 꾸렸다. 윤 집사는 1973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 1986년 남편과 사별한 후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의 권유가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집사는 중풍으로 한쪽 눈은 실명되고, 오른쪽 다리의 골절과 규폐증 2기의 몸이다. 고단한 삶의 끝자락이지만, 후덕하고 자상한 윤 집사로 인해 평온한 여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북한정부는 요한2서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전도사가 처형당하는 것도 보았고, 도당에서 내려 온 강사가 보여 준 반정부 운동을 한 기독교집단이라면서 포승과 수갑을 차고 끌

러가는 사진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지하교회란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원조가 절실하지만, 먼저 한국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분별없는 친북이 아닌, 기도 가운데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단호하다. 탈북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관심한 듯하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으며 말을 아낀다.

조창호 집사는 최초의 귀환 국군포로이다. 1994년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25명(2002년 1월 현재)이다. 북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45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70이 훌쩍 넘은 고령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능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존 그 자체도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이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 아닌, 주님이 뜻하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인터뷰: 심정남 집사>

생활속의 신앙

사랑의 매도 치시는 공의의 하나님



양희창 집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나의 유년시절은 여유있는 가정에서 존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천주교인이셨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이 할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천주교회를 다녔던 모습은 감추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 후 여유 있던 집안의 재물은 홍수를 만나 쓸러가듯 집안에는 앙상한 뼈대만 남기 시작했다. 나중에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천주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하셨으나, 아버지는 1973년 당뇨, 신장,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3일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분들의 기도로 기적처럼 나오셨다. 그 후 기독교로 옮기시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7년 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도 75세 때 암으로 진단받으셨으나,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아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이러한 부모님의 변화 속에서도 나는 마음 속으로는 믿었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다. 1983년 가을 기관지천식으로 10~20m도 걷기도 힘들 지경의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다. 1985년에는 교통사고로 온몸을 기브스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과란 주사선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더니 몸에

서 1m 떨어진 데서 멈추더니 나의 신경이 안 통하는 왼쪽 다리를 계속 아래 위로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도하며, 중간중간 눈을 떠보니 한 20분간 그렇게 비추던 빛이 없어졌으며, 그 다음날 정형외과 과장이 이상하다고 하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금의 모습처럼 걷고 땀 수가 있었다. 그 뒤 나는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심을 믿게 되었으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잘못할 때는 사랑의 매도 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모자란 나의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나의 현 생활과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믿으며, 따르고자 한다. <4>